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우상숭배와 정욕의 죄**

로마서 1-2장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많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이다.

[롬 1:18-19]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나타남이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본문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좇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많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많은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바울은 사람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가로막는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진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대항한다.

사람의 죄는 불경건과 불의로 요약된다. 모든 죄는 불의이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죄가 불경건이다. 불의는 불경건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義)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어긴 것이 죄이다. 죄들 중 불경건은 근원적 죄이다. 다른 모든 죄는 불경건에서 나온다.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므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어느 정도 알려주셨다. 그것이 사람의 종교성, 하나님 의식, 양심, 이성 등이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神性)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묘막측한 천지만물의 존재는 전지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 작은 건물 하나도 지은 자가 있는데, 천지만물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말이다. 천지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성(神性)을 알게 해준다. 자연만물은 사람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든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치 않고 도리어 우상숭배에 떨어졌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보인다. 무신론자도 전쟁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지만,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심히 어두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무지(無知)이며 어리석음이다.

[22-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새들과 짐승들과 버리지 형생기는 것들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진행과 목적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 없다. 역사상 천재적 사상가들의 결론은 보통 사람들의 결론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말한다.

사람의 무지의 대표적 증거가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혼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자존자이시며 그의 영광은 씩여지거

나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며,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지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우상숭배는 불경건과 무지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불경건이 모든 정욕의 죄의 원 인임을 보인다. 하나님은 인류의 도덕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부도덕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덕성의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악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정욕의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 그는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그들을 버려두실 권한도 있다. 왜 자신들을 구원치 않으시냐고 항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자연만물 속에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마음을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정욕의 죄는 불경건에서 나온다. 그것은 불경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 징벌이다. 죄는 죄를 더한다. 불경건한 사회는 음란한 사회가 된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징벌이다.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말을 가리키고, ‘거짓 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말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을 헛된 우상의 말로 바꾸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조물주 대신 혹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만, 우상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죽은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복과 화를 주지 못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돈이 신이며 사람이 신인가? 돈이 얼마나 헛되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재벌의 자살이나 병원 중환자실이나 장례식장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돈을 위해 살며 자신만 사랑하며 의지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간다.

사람은 이런 헛된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며 그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26-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파데 아티미아스) [저열한 욕망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아스케모쉬넨) [상스러운 행위들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죄들 가운데 두드러진 죄는 저열한 욕망의 죄 즉 음란의 죄이다. 바울은 여성들의 죄에 대해 말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역리로 쓴다. 여성들이 자신들을 순리대로 쓴다는 말은 성년이 되어 결혼하여 정상적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역리로 쓴다는 것은 정상적 결혼생활을 이탈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특히 여성들의 간음, 음행, 매춘, 동성애 등을 가리켰다고 본다.

바울은 남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로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남성이 남성으로 더불어 상스러운 행위들을 하였다. 이것은 동성애를 가리킨 것이라고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이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과 욕구는 이렇게 심히 변질되고 부패되었다.

동성애의 죄악은 옛날 소돔성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죄악이었다(창 19장). 또 옛날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런 죄악이 있었다(레 18장). 또 고대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죄악이 보편적이었다. 키케로(Cicero)는, “[동성애의] 행위는 헬라인들 가운데는 보편적이었고, 그들의 시인들과 위인들, 심지어 지식인들과 철학자들도 그런 일을 행했고 그것을 자랑했다. ... 그것은 어떤 특정한 도시들만의 풍습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의 풍습이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내리셨다. 소돔성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비로 잿더미가 되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멸망당했다. 고대 헬라와 로마도 다 멸망하였다. 오늘날 에이즈(AIDS) 질병의 세계적 유행은 동성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인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경건과 도덕성의 완전한 회복인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경건해야 한다. 우리는 우상숭배치 말아야 한다. 돈이나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과학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지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불의를 버리고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음란한 세대에서 특히 음란, 간음, 매춘, 동성애의 악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요셉이 애급의 총리가 됨

[창 41:1-8]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족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이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보기 흉하고 여윈]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보기 흉하고 여윈 소가 그 이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통통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통통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깰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급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석해준 지 만 2년 후에 애급 왕 바로가 한 꿈을 꾸었다. 그것은 이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와 보기 흉하고 여윈 다른 일곱 암소에 대한 것, 한 줄기의 통통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에 관한 것이었다.

[9-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굶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꾀족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 . .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던 요셉을 기억하며 그때의 일을 바로에게 고하였다.

[14-16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옥’이라는 원어(부르)는 ‘구덩이, 토굴’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어 증거했다.

[17-2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꾸 꿈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였다.

[25-31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 . .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은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32-37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급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급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積置)하게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급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40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신 자)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말으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41-45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급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얻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급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급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넛바네아(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가 살아계시도다라는 뜻이라고 보임)(NASB)라 하고 또 온(헨리오폴리스라는 성)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급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49절] 요셉이 애급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급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급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할 때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요셉을 총리로 등용한 바로는 애급의 중왕국시대 제12왕조(주전 2000-1780년) 센우스레트 3세(주전 1888-1852년)이었다고 보인다.

[50-52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

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던라.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이며, 에브라임의 뜻은 풍성함이다.

[53-57절] 애굽 땅에 일곱 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 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만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한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

둘째로,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꿈이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책이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었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었던 것이 왕에게 나아가 꿈을 해석할 기회가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발탁되어 단번에 총리가 되었다. 다윗의 경우도 비슷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이겨 사울 왕의 발탁을 받았고 그의 미움을 받고 여러 해 피신생활을 했으나 백성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고 마침내 왕이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넷째로, 애굽 땅 주위의 큰 흉년은 하나님의 재앙이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아굽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창 45:5).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 8:28).

수요일 설교 |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사 9:8-21] 주께서 아람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와 아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 교만하고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것이며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지

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는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들이 불로 썩나무를 태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태우실 것이다. 또 그는 그들이 서로의 것을 빼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울 것이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12, 17, 21절에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평안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특히 교만이었다. 교만은 그 자체가 큰 죄악이며 멸망의 길이다(잠 18:12). 교만은 사람의 모든 죄들 중에서 근본적인 죄이다.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복종하지 않고 거역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것은 큰 잘못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울삼아 조심해야 하고, 만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적받는다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적을 대항하지 말고 겸손히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고 모든 교만과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또 부족한 점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고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죄악을 멀리하되 특히 교만을 멀리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모든 죄와 교만을 버려야 한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자들이 백성을 미혹케 하므로 백성이 멸망을 당하였다. 우리는 인도자들을 잘 만나야 한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평안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 예레미야 6:14, “그들[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대수롭지 않게]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했어야 했다.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즉 거짓 목사들의 출현을 예언하시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하셨다. 마태복음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우리는 목사들이 전하는 말과 그 행실을 보고 그들이 참된 목사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20,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먼저 믿은 자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하고 교회와 교우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하고, 좋은 목사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